

교회법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통권 제22호

학술논문 / 월간

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복구 77주년 기념

1946 - 2023





월간

교회법

통권 22호

발행인 : 소재열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등록 : 김포,라00029

인쇄인 : 한명훈

발행일 : 2023. 4. 1.

주소 :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아침오피스텔 1208호

전화 : (03) 984-9134



- 조선예수교장로회 제31회 총회 고찰
-총회 폐쇄 전, 마지막 총회-
- 마포삼열 선교사와 마삼락, 마포화열
선교사 고찰
- 대신대학교 신학적 정체성 계승 고찰
- 지교회 대표자 지위에 대한 정관의
법적 효력

교회가 일제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다. 하나님은 이땅에 광복을 주셨다. 교회를 재건하고 노회와 총회를 재건하는 데 분주했다. 일제치하에 시달렸던 일반 국민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왔다. 교회에서 위로와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해외 선교사들이 전원 출국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재건해야 했다. 이때에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더불어 교역자들은 신사 참배와 전란에 시달린 자신들의 정화를 위하여 교역자 퇴수회(退修會)를 열었다. 평북 노회의 주최로 평북 6노회(평북, 평동, 용천, 의남, 선서, 삼산) 교역자 전원 99명이 1945년 11월 14일부터 1주간 선천 월공동교회에 모여 출옥성도 이기선 목사, 만주 봉천 신학 교장 박형룡 목사를 강사로 참회 기간을 가져 두 가지를 결의했다. 이때에 소위 「이북 5도 연합노회(1945. 11. 14)가 모여 잠정적으로 총회를 대신할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은 역사의 기록에만 남는 교회가 되었다. 이남에는 1946년 남부총회가 열려 1942년 제31회 총회를 계승한 제32회 총회로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부터 77년이 지났다. 지난 77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여전히 교회와 총회는 우리의 위로이며 희망인가? 되묻지 아니할 수 없다.



평북노회 신사참배 통회 수양회(1945)

조선예수교장로회 제31회 총회(1942) 고찰

총회 폐쇄 전 마지막 제31회 총회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한국교회법연구소)



일제는 1889년 제국 헌법이 선포되며 국가 수호신에 해당하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대만의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1904년 러일전쟁을 통해 사할린을 식민지로 확대해 갔다. 1905년에 이르러는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의 종교단체법으로 통제

1931년 만주사변, 1938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대륙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다. 1938년 9월 10일에 평양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는 일제의 강압(강압)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비극을 맞

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었던 평양장로회신학교는 1938년경 스스로 신학교를 폐교했다.

일제는 종교단체를 통제하기 위해 1939년에

다. ; “一九三八年 平壤西門外 教會(평양서문회 교회)에 모였던 第二十七回 總會(총회)에서 神社參拜(신사참배)를 決議(결의)할 때에 提案者(제안자) 動議者(동의자) 以外(이외)에는 可(가)라고 答(답)하는 者(자) 一人(일인)도 없는데, 會長(회장) 洪澤驥(홍택기)는 否(부)를 묻지도 않고 滿場一致(만장일치)로 可決(가결)되었다고 宣言(선언)하였으므로 數十名(수십명)의 宣教師(선교사)들은 한 사람씩 일어나 「抗議(항의)합니다.」라고 發言(발언)하여 會長(회장)의 不法宣言(불법선언)에 抗拒(항거)하였고, 韓富善 宣教師(한부선 선교사)와 같은 이는 義憤(의분)을 참지 못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總會長(총회장)의 不法宣言(불법선언)을 反駁(반박)하다가 倭警官(외경관)에게 制止當(제지당)한 일까지 있었으니, 法的(법적)으로 말하자면 神社參拜(신사참배)는 正式可決(정식 가결)을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不法宣言(불법선언)이 正式決議(정식결의) 以上(이상)으로 效力(효력)을 發生(발생)하였던 것이므로 南部總會(남부총회)는 그 決議(결의)를 確認(확인)하고 이를 取消(취소)하였다. 그러나 犯過(범과)에 對(대)한 眞實(진실)된 痛悔(통회)가 없었으므로 第三十四回 總會(총회)는 神社參拜(신사참배) 決議(결의)를 再取消(재취소)하는 同時(동시)에 神社參拜決議日(신사참배결의일)에 該當(해당)되는 主日(주일)을 痛悔(통회) 自服日(자복일)로 定(정)하여 이를 實施(실시)하였고, 一九五四年 第三十八回 總會(총회)는 出獄 聖者(출옥 성자) 李源永牧師(이원영목사)의 總會長(총회장)된 것을 契期(계기)로 神社參拜 決議(신사참배 결의)를 再三 取消(재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總會(총회)가 神社參拜(신사참배)의 犯過(범과)를, 痛切(통절)히 뉘우치지 못하였다는 證據以外(증거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一部(일부)의 教權主義者(교권주의자)의 自己(자기) 名譽(명예)를 爲한 jesu(제스)에 不過(불과)한 것이었다.”

1)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 十年史』 (서울: 大韓 예수教長老會 宗教教育部, 1956)의 아래 글은 제27회 총회 현장에서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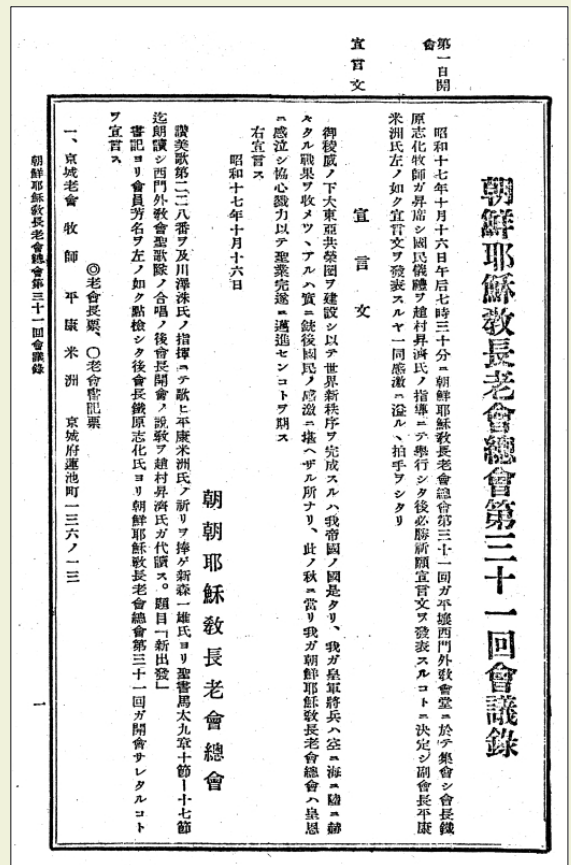
‘종교단체법’을 공포하였으며, 미국을 상대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전시 체제에서 ‘종교단체법’에 따라 일본 내 종교단체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고, 1941년 일본 내 모든 기독교 교파를 <일본기독교단>이라는 단일 교단으로 통합하여 전시 체제에 활용하였다.

일제의 교파 통합 정책

태평양 전쟁이 계속되자 이 시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개신교 단체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개신교 교단들을 모두 통합하여 단일 교단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총독부가 강력히 금지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름으로 모인 마지막 총회인 1942년 제31회 총회는 아예 일본어로 회의 진행과 일본어로 회의록을 기록하게 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42년 총회를 해산하였고, 장로교 교회들은 1943년 5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설립하고, 감리교 교회들은 1943년 10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설립하였다. 장로교와 감리교를 이 교단에 예속시켰다. 이후 1945년 7월에 장로교 및 감리교의 양 교단과 구세군 등 교단이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발족시켰으며, 일본 내 단일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에 소속됨으로써 교단 전체를 일제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중앙 조직은 양대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통리와 부통리를 각각 맡고, 지방 조직 각기 다른 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 두 명이 교구장의 책임을 함께 맡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8도 외에 중국에도 지부를 두



일본어로 기록된 제31회 총회(1942) 회의록

었다.

폐쇄 전 마지막 제31회 총회

1942년 제31회 총회는 1942년 10월 16일 7시 30분에 평양서문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다. 직전 제30회 총회장인 최지화 목사(창씨 개명 철원지화)는 먼저 필승 기원선언문을 낭독했다.²⁾ 제31회 총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평강미주(전필순) 목사의 결의문 낭독³⁾에서 “천황의 덕분으로 대동

2)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무국, 1942), 1.
 3)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국민의례를 조춘승재 씨의 지도로 거행한 후, 필승 기원

아공영권을 건설하고, 그로 인해 세계 신질서를 완성한 것이 우리 제국의 국시”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이어 그는 “이 가을에 우리 조선 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협신 전력으로 성스러운 업적을 완수하도록 매진할 것을 결심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낭독이 있자 회중들은 “일동은 크게 감격해서 박수”를 쳤다.⁴⁾ 이는 제31회 총회 결의가 아니다. 결의란 의장이 제31회 총회를 개회하기 전에 임의로 결의한 것이다.⁵⁾ 이러한 결의문을 선언한 후 개회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찬송가 제228장 급천택수 씨의 지도로 찬양하고 평강미주 씨가 기도를 드린 후, 신림일웅 씨가 마태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낭독하고, 서문외교회 성가대의 합창 후, 회장 가회 설교를 조촌승제 씨가 대독함. 제목 <신출발>.

서기가 회원명부를 왼쪽과 같이 점검한 후, 회장 철원지화 씨로부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31회 개회가 선언되었다.⁶⁾

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결정하고, 부회장 평강미주 씨의 외쪽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자 일동은 크게 감격해서 박수함.” 총회장이 일제의 필승 기원선언문을 낭독하지 않고 평강미주(전필순) 목사가 낭독한 것은 총회장 최지화 목사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자 일본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한 전필순 목사가 일본어로 낭독했다. 전필순 목사는 일본에서 공부한 후 평양신학교에서 1개월 동안 수업을 한 후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4)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1

5) 제31회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개회예배 이전에 필승 기원문을 ‘선언문’으로 발표했다.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개회 예배후 27개 노회의 총대 호명을 후 개회를 선언했다. 제31회 총회를 개회한 후에 결의되어야 정식 결의로 성립된다. 그러나 개회 전에 이러한 선언문은 제31회 총회 결의라 할 수 없다.

개회설교는 총회장 철원지화(최지화 목사)가 해야 한다. 그러나 조촌승제 씨가 회장 개회 설교를 대독했다. 일본 경찰은 총회진행까지 간섭하여 일본어를 국어라 하고 국어, 즉 일본어로 회의 진행을 강요하여⁷⁾ 일본에서 신학을 했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조촌승제 목사가 총회장을 대신해 성경 본문 마태복음 9:10-17절 말씀으로 ‘신출발’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대독했다.⁸⁾ 이어 회장 철원지화 목사는 제31회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날 총대는 27개 노회⁹⁾ 중에 목사 총대 69명, 장로 총대 66명, 합계 135명이었다. 1942년 4월, 조선에 남아 있던 40여 명의 선교사 전원 강제 출국하였으므로 제31회 총회는 선교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총회 임원선거에서 평강미주(전필순) 목사보다 2표를 더 받은 신림일웅(김응순)을 총회장에 선출했다. 총회장 선거에서 2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한 평강미주 목사는 부회장에 선출되었다.¹⁰⁾

6)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1

7)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다산글방, 1994), 231.

8) 철원지화(최지화) 목사의 설교를 조촌승제(조승제) 목사가 일본어로 대독하였다.

9)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1-8. ; 경성노회, 경기노회, 충청노회, 전북노회, 군산노회, 전남노회, 순천노회, 제주노회, 경남노회, 경동노회, 경안노회, 경북노회, 함남노회, 함중노회, 함북노회, 산서노회, 삼산노회, 의산노회, 용천노회, 평북노회, 평동노회, 안주노회, 평양노회, 평서노회, 황해노회, 황동노회, 화북노회(북경시) (이상 27개 노회)

10)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231.: “다음 해인 1942년에 부회장이 의례히 회장이 되는 것이었다[편집자주, 1941년 제30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지방색의 횡행으로 인해서 이승길 목사가 ‘전 목사는 아직 연소하니 한자로 회장을 하도록 양보함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그 때 나는 연소하니 좋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목사는 김응순 씨를 회장으로 하지는 운동을 맹렬하게 벌인 끝에 2표의 차이로 김응순 씨가 회장으로 당선되고 나는 부회장으로 재선되었다. 이

서기 급천택수, 부서기 배천매수, 회의록 서기 김자종대, 부회록서기 김성진수, 회계 김원리현, 부회계 장간의웅이었다. 임원선거를 마치고 첫째 날 회무를 정회했다.

집단적인 총회의 신사참배

다음날인 2일째 17일 오전 9시에 총대 일동은 평양신사를 참배하였다. 신사참배를 하고 곧바로 회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장에서 전 총대를 상대로 ‘시국 강연’이 있었다. 강사는 평안남도 고등감찰과장 심정 선생이 맡았다.¹¹⁾

시국 강연을 마치자 임원 교체와 회장 분배가 진행되었다. 회장 분배는 평양 연화동교회 부인 전도회가 준비하였다. 본회는 공천부(부장 평강미주) 보고를 마친 후 둘째 날 오전 회무를 12시 40분에 마쳤다. 오후 2시에 회무가 시작되면서 전회기에서 유안한 안전부터 처리했다.

“전 서기로부터 제30회에 보류안건인 경성노회로부터 제안한 조선 내 신교 각파 합동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동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가 있기까지 보류”하기로 했다.¹²⁾ 이는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을 염두하고 있었다. 이어 현의부(부장 허전담)의 보고가 있었다. 현의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충청노회와 평양노회가 현의한 조선 내 각 교파 합동에 대한 제안건이었다. 이

제안은 정치부로 이첩했다. 또한 경기노회와 경성노회 합병안이 현의되었다. 본회는 두 노회의 합병은 허락하고 노회 조직에 대해서는 소집장에 평강미주씨를 임명하고 소집일시 및 장소는 소집장에게 일임했다.¹³⁾

경기노회, 경성노회 합병 결의

일제는 조선의 교회를 일본화를 위해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40년 9월 일본 기독교연합회장으로 일본 메소디스트교회 감독을 겸임하고 있던 아베(阿部義宗)가 방한하여 ‘기독교의 신체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의 황민화와 교파 합동을 역설하였다. 교파 합동은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조선의 교회를 통제하고 일제에 예속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음모에 속수무책이었다.

일제 순응하여 국내 교파 간의 합동을 위하여 1942년 1월부터 ‘교파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31회 총회에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충청노회와 평양노회가 앞장을 섰다. 이 두 노회가 조선 내 각 교파 합동에 대한 제안 건을 제31회 총회에 현의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중앙상치 위원회에 일임했다.¹⁴⁾

후 평양신학교, 천황의 은총에 감격

평양신학교 교장인 좌천필근(채필근)의 신학교

것이 제2차의 부회장으로 당선된 과정이었다. 이것은 총회가 발족한 이래 전에 없는 불상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자연한 것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양해를 구해가지고 당선운동을 한 것이니 이보다 더한 역사적 오점은 없을 것이다.”

11)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8.

12)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8.

13)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34.

14)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34.

보고가 있었다.¹⁵⁾ 이 신학교는 선교부가 신사참배 결의로 신학교 문을 닫은 후 열지 않자 총회가 평양신학교를 총회 직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학교를 후평양신학교라 한다. 재교장은 “본교는 작년(1941) 12월까지 2회에 걸

밝히고 있다. 또한 “반도교회 전체로 보아도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 지 1년도 되지 않는 오늘을 생각해 보면, 일신동인의 천황의 은총과 내선일체 정책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양을 떨었다.



후 평양신학교(교장 채필근) 제1회 졸업식(1941. 3. 12.) 강당에 일장기가 걸려있다.

쳐 졸업생 59명을 배출했다”고 보고했다. 마포삼열 및 서문외예배당 1층을 교사로 차용하여 신학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재단법인 재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 유지재단이 작년 말 적산으로 된 관계로, 본교는 조선 총독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용 중이라고 보고했다.

후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친일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신학교였다. 그래서 채필근 교장은 본회에 보고서에서 “본교는 1939년 창립경영 당초보다 다사다난한 과거 6년간에 걸쳐서 평안남도 및 총독부의 특별한 후의와 친절한 지도에 의해 현재 발전을 보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특이한 것은 “미국과 영국 사람의 사상 관념 내지 예의 습관에 감염되어 이것들이 더욱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깊이 반성하고 국가에 대해서 범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한다”고 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기독교 일본화 운동을 제일선에 서서 미영 의존주의부터 완전히 탈피하고, 이것으로부터 순 일본 정신에 의해서 갱생할 것을 스스로 맹세한다”고 총회에 보고했다.¹⁶⁾

셋째 날 오후 2시에 성찬식을 거행했다. 첫날 개회 때에는 신사참배와 일제의 필승 기원선언문, 시국강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정작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다.¹⁷⁾

성찬식은 3일째에 시행

성찬식은 겨우 3일째 되는 날 오후 시간에 진행되었다. 성찬식 집례는 석천목사가 고린도전서 5:6-8절 말씀을 통해 ‘신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성찬식을 마치자 오후 3시에 또 특별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강의는 조선군보도부장인 참무관하가 ‘일본군인’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

15)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11-17.

16)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13.

17)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26.

을 듣게 되었다.¹⁸⁾ 이 강연으로도 부족했던지 이날 저녁 7시 30분에 전승 기원 총회 예배가 있었다. 이날 서문외교회의 합창이 있는 후 촌안청언 선생이 ‘대동아 전쟁과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국방헌금을 하는 순서를 갖기도 했다. 이어 9시에는 이기풍, 목애도웅 두 목사의 추도식을 가졌다.¹⁹⁾

제31회 총회를 개최한 지 4일째 되는 날 오전에서야 비로소 정치부 보고가 있었다. 충청노회장 및 평양노회장이 현의한 조선 내 재교파 합동의 건은 가결하고, 교섭위원 선출은 중앙상치위원회에 위임했다. 제31회 총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941년에는 교인 수가 355,764명이었으나 1942년에는 249,746명으로 감소하였다. 16일부터 시작한 제31회 총회는 5일째 되는 20일 5시 10분에 폐회했다. “회장으로부터 빌레몬서 4



제31회 총회를 마치고 일본에 초청을 받아 신사참배한 조선교회 교역자 대표들

절부터 7절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린 후 황국신민회 서사를 백천매수씨의 지도 아래 제창하고, 5시 10분에 회장으로부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1회가 폐회됨을 선언함.” 이렇게 하여 마

지막 총회가 폐회되었다.²⁰⁾

1942년 제31회 총회를 끝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폐쇄되었다. 이듬해인 1943년에는 제32회 총회로 모여야 하지만 이제 총회는 폐쇄되고 1943년 5월에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편되어 출범했다. 감리교회도 1943년 10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으로 개편되어 출범했다.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출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규칙 제3조 ‘본 교단의 연혁’에 의하면 “조선 반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회 설립은 명치 초년 내지 및 만주로부터 포교 받은 것을 발단으로 하여 명치 17년 이후 교회는 점차 발전하여 교파 수 20여개에 이르렀으며, 그 중 최대의 교파는 조선예수교장로회로 교회 수 3,000개, 신도 수 30만 명을 갖고 있다.”고 진술한다. 1942년 현재 정확한 신자의 수는 249,746명이었으며, 1941년 현재 355,754명이었다. 교회 총수는 1941년 현재 3,624, 1942년 현재 2,543 교회였다.²¹⁾

이어서 “소화 16년(1941) 12월 8일 황공하옵게도 태평양 전쟁 선포의 대소환이 발하자 우리들 황국신민은 일역일심, 총력을 기울여, 팔굉위우의 건국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반도 내의 각 교회도 적성을 다하여 하루라도 빨리 완전한 황민화 하는 것을 최대 급선무로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에 조선예수교장로회도 그 교의신학, 성서해석, 교회조직 및 의식습관 등에 있어서 종래의 사상 태도를 깨끗이

18)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26.

19)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27.

20)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58.

21)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 28-29.

청산하여 순일본적기독교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하여 그 명칭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이라 칭하고 각 지방의 대표가 소화 18년(1943) 5월 5일 경성(서울)에 모여, 새롭게 교단 규칙을 제정하여 직역 봉공, 종교 보국에 매진하는 새로운 발족을 하기로 하다.”라고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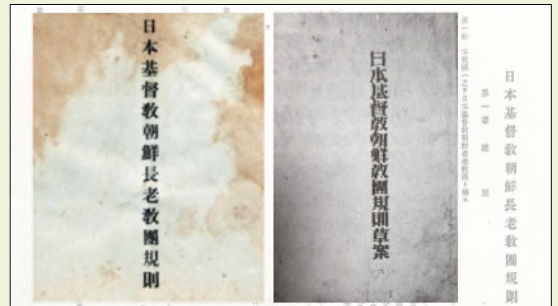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의 생활강령(제6조)에 의하면 “1. 황국의 도를 따라 신앙에 투철하며 각각의 분을 다하여 신도(臣道)를 실천하며, 황운을 부익하여 받든다. 2. 교의를 받들어 주일을 지키며 공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3.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국풍을 중히 여기며 경건의 수행을 쌓고 가정을 깨끗이 하여 사회 풍교(風教)의 개선에 힘쓴다.”라는 내용이다. 전남교구는 이러한 규칙을 널리 알리며 학습해야 한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출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은 1944년에 해체되고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이 1945년 7월 19일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또 다시 개편되어 통합되었다. 이때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 대표 21명, 구세군 대표 6명, 그리고 5개 소 교파 대표 각 1명씩 모여 이 교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 교단의 통리는 장로교의 김관식 목사였으며, 부통리는 감리교의 김응태 목사, 총무는 장로교의 송창근 목사였다. 그러나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출범한지 한 달 만에 태평양 전쟁 종전과 일본의 패망, 8.15광복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제27회 총회 신사참배결의만 회개 해야하는가?

해방되자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에 소속해 있던 각 교구는 해산하고 다시 노회를 복구했다. 1946년 남부총회를 제31회 총회(1942)를 계승한 제32회 총회로 하여 금년(2023. 9)은 제108회 총회가 된다. 과거 총회의 잃어버린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총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계승해야 한다.



왼쪽은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규칙(1943), 우측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규칙(1945)

역사적으로 총회는 제27회 총회(1938년)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결의한 제27회 총회 결의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다. 이러한 회개를 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27회 총회 이후 공적으로 총회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공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다.

해방이후 반민특위의 조사에서 전필순 목사는 “저는 과거 시 교회 목사로서 득죄(得罪)한 일은 있으나 반민족적인 행위는 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반민특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그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피의자 전필순은 예수교 목사로서 중일전쟁 시에

일본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조선 민족혼을 말살시켰으며, 일본의 침략전(侵略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일본국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그 단체의 수뇌 간부가 되어 악질적 행동을 한 일본의 충견(忠犬)이라는 보고임. 위 자를 엄밀히 문초한 결과 다음 각항의 사실이 명확함.

- 가. 피의자 전필순은 중일전쟁 시에 예수교 목사로서 국내 각지에 순회하여 신성한 교당에서 일본 침략전쟁을 정의(正義)라고 하였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강연을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전쟁협력을 권유한 사실이 명확함.
- 나. 피의자 전필순은 기독교인을 망라하여 혁신교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그 단체 수뇌간부로서 일본국책을 추진시킨 사실이 명확함.
- 다. 피의자 전필순은 신성한 교당(教堂)에 일본 가미다나(神)를 설치할 것과 또는 황도(皇道)연구회를 설립하자는 것을 결의한 사실이 명확함
- 위와 같은 범죄이므로 반민법 제4조 제10항, 제11항에 해당한 자라고 사료됨. 위 결의함.²²⁾

제44회 총회(1959년)는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했다. 제43회 총회장인 노진현 목사가 제44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혼란이 임하여 증경총회장에게 자문과 정책을 구하기로 하고 정회하고 속회한 증경총회장의 제안에 따라 계속회를 11월 24일에 소집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그러나 안광국 목사는 개인적인 즉석 발언을 통해 “본인은 임원 불신임안을 발의하였다. 그때 제42회 총회장인 전필순 목사가 가부를 물어 결의했다.”²³⁾ 이어 이어진 속회

총회에서 임시 의장으로 전필순 목사를 회무를 진행하므로 합동 측으로부터 불법 인물로 낙인찍힌 인물이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 교회와 노회, 총회 재건이 이루어졌다.

平北(평북) 六老會(육노회) 教役者退修會(교역자퇴수회)에서 六老會(육노회) (平東(평동)平北(평북)龍川(용천)義山(의산)山西(산서)三山(삼산) 代表者(대표자) 間(간)에 北韓(북한) 五道聯合老會(오도연합노회)의 組織(조직)에 對(대)한 意見(의견)의 合意(합의)를 보았으므로 그들과 平壤老會(평양노회)가 中心(중심)이 되어 五道(오도) 十六老會(십육노회)와 連絡(연락)을 取(취)하여 卽時(즉시) 準備委員會(준비위원회)을 모으고 聯合老會(연합노회) 組織(조직)에 對(대)한 節次(절차)를 決定(결정)한 후, 一九四五年 十二月初(초)에 平壤(평양) 章台峴教會(장태현교회)에 五道聯合老會(오도연합노회)가 會集(회집)되었다. 이렇게 北韓(북한) 五道聯合老會(오도연합노회)의 組織(조직)을 急速(급속)히 進行(진행)케된 다른 한 理由(이유)는 소련 軍政(군정)의 態度(태도)가 漸漸(점점) 強硬(강경)해지고 三八線(삼팔선)의 監視(감시)도 나날이 嚴重(엄중)하여 北韓人(북한인)의 南下(남하)는 勿論(물론) 南韓人(남한인)의 北上(북상)까지도 禁止(금지)되고 基督敎 指導者(기독교 지도자)들에 對(대)한 監視(감시)와 調查(조사)가 매우 날카로워져 소련의 韓國(한국)에 對(대)한 野望(야망)의 濃(농)지 않음이 豫感(예감)되어 教會(교회)의 強力(강력)한 結果(결과)의 必要(필요)를 切實(절실)히 느끼게 된 때문이었다.

選定(선정)된 北韓(북한) 五道聯合老會(오도연합

22)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231-232.

2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 회록(통합)』, 30.

노회)의 會長(회장) 金珍洙牧師(김진수목사)와 同會(동회)의 幹部(간부) 金哲勳牧師(김철훈목사) 李裕澤牧師(이유탉목사) 金吉洙牧師(김길수목사)等(등)의 教會(교회)의 中堅層(중견층) 人物(인물)들의 그 鞏固(공고)한 決意(결의)와 눈부신 活動(활동)은 急速(급속)히 增加(증가)되는 教會(교회)의 指導(지도)와 날로 加重(가중)해 지는 政治的(정치적) 壓力(압력)에의 對決(대결)과를 敢行(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一般(일반)의 豫想(예상) 하던 그대로 그들은 얼마 후에 共產主義(공산주의)의 無慈悲(무자비)한 鬭爭(투쟁)과 맞서 死(사)를 賭(도)하여 싸워 끝까지 屈(굴)하지 않았고 마침내 羊(양)들을 爲(위)해 목숨을 버려 殉教(순교)의 榮冠(영관)을 썼다. 聯合老會(연합노회)에서 決定(결정)된 重要案件(중요안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1) 北韓(북한) 五道聯合老會(오도연합노회)는 南北統一(남북통일)의 完成(완성)될 때까지 總會(총회)를 代行(대행)할 수 있는 暫定的(잠정적) 協議機關(협의기관)으로 한다.
- (2) 總會(총회)의 憲法(헌법)은 改正以前(개정 이전)의 憲法(헌법)을 使用(사용)하되 南北統一(남북통일) 總會(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 (3) 全教會(전교회)는 神社參拜(신사참배)의 罪過(죄과)를 痛悔(통회)하고 教職者(교직자)는 二個月間(이개월간) 勤慎(근신)할 것.
- (4) 神學校(신학교)는 聯合老會(연합노회) 直營(직영)으로 한다.
- (5) 祖國(조국)의 基督教化(기독교화)를 目標(목표)로 獨立紀念(독립기념) 傳道會(전도회)를 組織(조직)하여 傳道(전도) 教化運動(교회운동)을 大大的(대대적)으로 展開(전개)한다.
- (6) 北韓教會(북한교회)를 代表(대표)한 使節團(사절단)을 派遣(파견)하여 聯合國司令官(연합국사령관)에게 感謝(감사)의 뜻을 표

(표)하기로 한다.

北韓(북한) 五道聯合老會(오도연합노회)를 長老教(장로교) 總會(총회)로 만들지 않고 一個(일개)의 協議機關(협의기관)으로 만든 것은 매우 賢明(현명)한 處事(처사)이었다. 그 때문에 一九四七年 南韓教會(남한교회)가 單獨(단독)으로 長老教(장로교) 全體總會(전체총회)를 繼承(계승)하게 될 때 아무런 困難(곤란)을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北韓(북한) 五道聯合老會(오도연합노회)는 實際(실제)에 있어서는 總會(총회)를 代行(대행)하는 機關(기관)이었으므로 長老會(장로회) 總會憲法(총회헌법)을 使用(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聯合老會(연합노회)는 倭政(외정)의 強制(강제)에 依(의)하여 改正(개정)된 憲法(헌법)을 버리고 改正以前(개정 이전) 憲法(헌법)을 復舊使用(복구사용)한 것은 實(실)로 妥當(타당)한 處事(처사)이었다. 急速度(급속도)로 發展(발전)되는 教會(교회)의 要請(요청)에 應(응)하여 多數(다수)의 實力(실력)있는 教役者(교역자)의 養成(양성)을 爲(위)한 神學校(신학교)의 再建(재건)은 무엇보다도 焦眉(초미)의 急(급)을 告(고)하는 重大事(중대사)이었으므로, 聯合老會(연합노회)는 神社參拜 拒否(신사참배 거부)로 閉鎖(폐쇄)되었던 平壤神學校(평양신학교)의 再建(재건)을 決定(결정)하고, 神學校教育(신학교교육)의 責任(책임)을 金仁俊牧師(김인준목사)에게 맡기었다.²⁴⁾

남한에서는 이남지역의 장로교 지도자들이 모여 남부총회를 개최했다.

一九四六年 봄까지에 長老教 諸老會(장로교 제노회)의 再建(재건)의 完結(완결)을 보았으므로 同年(동년) 六月 十二日(12일)부터 四日間(4일간) 서울 勝洞教會(승동

24)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 十年史』 참조.

교회)에 南部總會(남부총회)가 열리었다. 南韓 教會(남한 교회)만의 總會(총회)였기 때문에 南部總會(남부총회)라고 이름하였다. 南部總會(남부총회)는 在野教役者(재야교역자) 裴恩希牧師(배은희목사)를 會長(회장)으로 咸台永牧師(함태영목사)를 副會長(부회장)으로 推戴(추대)하여 新總會(신총회)를 組織(조직)하였으므로 一見 教會(일견 교회)의 主導權(주도권)이 前教團指導者(전교단지도자)들의 손에서 떠난 것 같이 보여졌으나, 兩牧師(양목사)는 實際(실제)의 牧會者(목회자)가 아니었으므로 教會(교회)의 主導權(주도권)의 實際(실제)의 變化(변화)는 조금도 없었다. 그러므로 慶南老會(경남 노회) 一部(일부)에서는 不滿(불만)을 가지기 始作(시작)하였다. 南部總會(남부총회)의 決議(결의)한 重要案件(중요안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憲法(헌법)은 南北(남북)이 統一(통일)될 때까지 改正(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使用(사용)한다.
2. 第二十七回 總會(총회)가 犯過(범과)한 神社參拜 決議(신사참배 결의)는 이를 取消(취소)한다.
3. 朝鮮神學校(조선신학교)를 南部總會 直營神學(남부총회 직영신학)으로 한다.
4. 女子 長老職(여자 장로직)의 設定問題(설정문제)는 南北統一 總會時(남북통일 총회시)까지 保留(보류)한다.

南部總會(남부총회)가 憲法改正(헌법개정)을 保留(보류)한 것은 總會員(총회원) 三分之二 以上(삼분지이 이상)의 贊成(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法的 制約(법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一便 北韓教會(일편 북한교회)에 對(대)한 禮儀(예의)를 잘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었다.

南部總會(남부총회)는 再建復舊(재건복구)되는 教會(교회)를 爲한 教役者 養成(교역자 양성)의 必要(필요)를 切實(절실)히 느낀 나머지 神學思想問題

(신학사상문제)라든지, 經營(경영)에 關(관)한 問題(문제)를 慎重(신중)히 檢討(검토)하지 않고 朝鮮神學校(조선신학교)의 要請(요청)을 그대로 받아 總會(총회)의 直營(직영) 神學校(신학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後에 여러 가지 難問題(난문제)가 發生(발생)하였다.²⁵⁾

1946년 6월 12일 남부총회는 제32회 총회를 계승하기로 하고 역사를 계승하여 2023년 9월 총회는 제108회 총회가 되었다.

결론

그동안 우리는 제27회 총회(1938년)에서 결의한 신사참배만 회개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제31회 총회만 보더라도 우리는 신사참배 결의와 맞먹는 동일 수준의 공적인 죄를 범한 경우가 얼마였던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해 주셨다. 교회가 다시 성결성을 유지하는 재건 작업이 일어났다. 폐쇄된 노회와 총회가 복구되었다. 그로부터 올해는 77주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 노회와 총회는 너무나 배불러 있다. 너무나 화려하다. 너무나 교권적이며, 세상적이다.

총회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꾼들에 의해 교회를 발람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 이름답게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이다. 더 이상 총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너무나 피곤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지도해 갈 교단총회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

25)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 十年史』 참조.

마포삼열 선교사와 마삼락, 마포화열 선교사 고찰

김순정 목사(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본부장)

1. 마포삼열 선교사

1) 마포삼열 선교사(Samuel Austin Moffet)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 Moffet, 1864~1939) 선교사는 “평양을 세계 최대 선교 지부로 발전시킨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이며 한국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²⁶⁾ 그는 한국 이름 마포삼열이며, 영어 이름은 Samuel Austin Moffet이다. 인디애나주 메디슨 출생으로 칼빈주의와 청교도의 엄격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²⁷⁾

1884년 하노버 대학(Hanover College)에서 자연과학부(화공학 전공)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신학교에 가지 않고 존스홉킨스 대학에 진학하여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²⁸⁾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다. 1889년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하였다.²⁹⁾ 당시 시카고의 매코믹 신학교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교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시켰다. 그리고 미조리

주 애플튼시의 제일장로교회에서 약 1년 간 시무하였으며 1889년 4월 15일에 마포삼열은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에서 한국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³⁰⁾

2) 한국의 선교사역

그는 26세 나이로 1890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내한하게 된다.³¹⁾ 조선에 도착한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보다 미개척 지역에 관심을 가졌다. 사상륜의 안내로 개성을 거쳐 평양, 안주, 박천을 거쳐 용천, 의주에 당도한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까지 여행을 하였다. 1893년 평양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조력자인 한석진(韓錫晉)과 함께 전도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³²⁾

그는 교회 설립만큼 신학교 설립에도 관심을 가졌다. 1890년부터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를 중심으로 신학반을 만들어 1개월 동안 수업을 마친 이들을 전도인이라 하여 지방으로 보내 전도 사역을 하도록 했다. 1900년에 마포삼열은 이런

26) “마포삼열이 끼친 영향력 연구,” 기독교신문, 2022.3.25.

27) “선교사열전 ⑧ 마포삼열 선교사(사무엘 마펫, Samuel A. Maffett),” 고신뉴스, 2022.01.11.

28)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2019.5.30.

29)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사전, “마포삼열.”

30)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2019.5.30.

31) “마포삼열이 끼친 영향력 연구,” 기독교신문, 2022.3.25.

32)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2019.5.30.



마포삼열 가족(1919) 세 번째가 마삼락(1916-2015) (원안 마삼락)

신학반을 정규신학교로 승격시킬 구상을 가지고 미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신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다.³³⁾

1901년에 그는 처음으로 평양에 교역자 영성을 위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된다. 1904년 평양 공의회는 마포삼열을 평양장로회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추천한다. 그리고 교수로는 언더우드, 전위렵, 왕길지, 이눌서 등이 있었다. 1907년에 한국교회 역사 최초로 한국인 목사 7명, 서경조(58세), 한석진(41세), 송린서(40세), 양전백(39세), 방기창(58세), 길선주(40세), 이기풍(40세)이 배출되었다. 이후 1924년까지 그는 신학교 교장직에 있으면서 김익두, 함태영, 김선두, 남궁혁, 주기철, 채필근 등 800여 명의 목사를 배출했다.³⁴⁾

마포삼열은 희년 기념 연설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결심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하기 없기로 결심하였다.”라

33)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2019.5.30.

34)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2019.5.30.

고 했다.³⁵⁾ 이것은 당시 마포삼열의 신학과 더불어 평양신학교의 신학의 성격을 말해준다. 조직신학 교수인 이율서 선교사도 “기독교가 성경을 버리거나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문자나 절구를 고친다든지 그 정신을 덮어 놓는다든지 그 의미를 굽힌다든지 해서는 안된다.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정신

을 그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다.³⁶⁾

마포삼열은 1890년부터 1936년까지 46년간 한국의 평양을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1000여 교회와 300여 학교를 세웠으며,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여 800여명의 목사를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7년 장로회 독노회 초대 노회장을 역임했고, 평양장로회신학교 학장을 지냈고,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8대 총회장을 맡았고, 미국 장로회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도 했다. 장로회 총회장으로도 섬겼다.³⁷⁾

그는 26세 젊은 나이로 조선을 찾아와 조선의 민족 복음화와 독립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았으며 1934년 70세의 나이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계속해서 조선에 머물면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다가 1936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당했다.³⁸⁾

35)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 173.

36)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 174; 김의환, 『한국교회사』, 436.

37) “마포삼열이 끼친 영향력 연구,” 기독교신문, 2022.3.25.

38) “선교사열전 ⑧ 마포삼열 선교사(사무엘 마펏,

마포삼열 박사 가족과 한국의 인연은 계속되어 현재 미국 프린스턴신학대 명예교수인 장남 사무엘 H. 마펏은 장신대 강단에 섰으며, 차남 하워드 마펏은 대구 동산병원 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³⁹⁾

3) 매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매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는 미국 장로교(PCUSA)에 소속된 10개의 신학교 가운데 한 곳이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교 옆에 있다. 1829년 인디애나주 하노바에서 시작되었다가 1859년 현재 링컨 파크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학교 명칭은 하노바 신학교였다. 그러나 후에 미국의 미국의 발명가 사이러스 매코믹이 학교의 이사회의 이사였는데 그의 이름을 따라서 학교를 맥코믹 신학교로 명칭하였다. 한국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학교의 출신들이었다.

매코믹 신학교는 마포삼열이 신학교를 다닌 1880년까지 프린스턴, 유니언 신학교와 함께 신학적 차이가 없었다. 프린스턴신학교가 구학파를 주도하였고, 오번신학교, 유니언신학교, 오벌린 등이 신학파를 주도였다. 그러나 한 신학교 안에도 구학파와 신학파를 따르는 교수들이 공존하였다.⁴⁰⁾

마포삼열이 매코믹 신학교를 다닐 때 이 학교는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가르쳤고, 무디 부흥운

동과 YMCA운동, 전천년설적인 해외선교학생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국내 선교를 하는 동안에 보수적 청교도적 신앙을 고수하였으며 주일성수, 댄스 금지, 흡연 금지, 카드놀이 금지, 성경의 고등비평 거부, 자유주의신학 거부, 전천년설 고수, 근대 신학 거부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4) 내한한 매코믹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

1888~1905년까지 국내에서 선교한 선교사들 중 매코믹 신학교 출신자들은 기포드(기보) 선교사, 마펏(마포삼열) 선교사, 베어드(배위량) 선교사, 리(이길함) 선교사, 스왈론(소아론) 선교사, 무어(모삼열) 선교사, 아담스(안의화) 선교사, 샤프 선교사, 시릴 로스 선교사, 번하이젤(편하설) 선교사, 블레어(배 위량) 선교사, 바렛(박위렴) 선교사, 클락(곽안련) 선교사, 피터스(피득) 선교사, 칼 컨즈 선교사 등이다. 그리고 그 후 1939년까지 그들의 영향으로 한국에 온 매코믹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이 60여명에 이른다.

2. 마삼락, 마포화열 선교사

1) 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내들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 선교사는 그 자신만 조선에 선교사로 활동하다 소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들도 함께 선교에 수고하였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1) 엘리스 피쉬(Merry Alice Fish Moffett) 부인

Samuel A. Maffett),” 고신뉴스, 2022.01.11.

39) “마포삼열 박사 유해 67년만에 한국 땅 묻힌다,” 국민일보, 2006.4.11.

40) 옥성득, “초기 신학 논쟁에 드러난 서울(언더우드)과 평양(마펏)의 신학 차이,” 「기독교사상」 2019.9 월호를 참고하라.

엘리스 피쉬 마펫(Merry Alice Fish Moffett, 1870-1912) 부인은 1897년 12월 4일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한다. 1898년 평양지부에 배치된 그녀는 먼저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사무엘 마펫(마포삼열) 목사와 이듬해 결혼하였다. 엘리스 마펫은 의료선교사로서 활동하였지만, 특별히 여성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1901년 이후 평양에서 여성 성경연구반을 조직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은 날마다 늘어났다. 그녀는 죄에 관한 문제, 회개, 신앙, 구원 등의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⁴¹⁾

또한 엘리스 마펫 선교사는 1903년부터 평양 외국인학교 중등교육과정의 책임자가 되어 학교 안에 독서실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신간 서적을 때마다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또 1904년 3월부터 개교한 평양맹학교에서 맹인 학생들을 위한 신앙지도에 힘을 쏟았다. 엘리스 마펫 선교사는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였으나 마포삼열 목사와 결혼 이후 교육 방면에서도 큰 업적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마포삼열과 함께 한국인을 깊이 이해하고,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와 기독교 박해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켜 일제의 불법적인 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소신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⁴²⁾

1912년 7월에 의사로 내한한 엘리스 마펫 선교사는 의료 및 교육 사역에 과로하다가 이질에 걸려 보름 동안 계속 심한 설사를 하다가 평양에서 소천하였다. 그녀의 나이 42세였다. 그녀는

슬하에 2명의 아들 제임스 M. 마펫(James Mckee Moffett)과 찰스 H. 마펫(Charles Hull Moffett)을 두었다. 제임스 마펫은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국내 선교사로 활약을 했으며, 찰스 마펫은 목사로서 인도 선교사로 활동한 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였다.⁴³⁾

(2) 루시아 피쉬(Lucia Hester Fish Moffett) 부인

1915년 마포삼열 목사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의 사촌 여동생인 루시아 H. 피쉬(Lucia Hester Fish Moffett, 1877-1962)와 재혼한다.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은 3명으로 사무엘 H. 마펫(Samuel Hugh Moffett), 하워드 F. 마펫(Howard Fergus Moffett), 그리고 토마스 F. 마펫(Thomas Fish Moffett)이 그들이다.⁴⁴⁾

셋째 아들 사무엘 H. 마펫(Samuel Hugh Moffett)은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모의 뒤를 이어 다시 국내에 들어와 선교 활동하게 되었다. 넷째 아들 하워드 F. 마펫은 의사가 되어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 국내에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2) 마삼락(Samuel Hugh Moffett)선교사

(1) 마삼락의 생애

마삼락(새뮤얼 H. 모펫, 1916년 4월 7일-2015년 2월 9일) 선교사는 한국 이름 마삼락(馬三樂), 마포삼락(馬布三樂)으로 불리기도 한다.⁴⁵⁾

41)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2019.5.30.

42)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2019.5.30.

43) 손영규, “한국 초기 의료선교 역사,”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2019.5.30.

44) 손영규, “마펫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45) Oak, Sung-Deuk, “A Great Man Died

그는 1916년에 4월 7일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계속 공부하였다. 1942년 휘튼 대학에서 고전학을 공부하였고 최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1942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휘튼에서 재학중에 만난 엘리자베스 타란트(Elizabeth B. Tarrant)와 결혼했다.⁴⁶⁾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47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의 연칭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다가, 1949년에는 남경의 남경신학교에서 강의하였다. 1951년에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공산당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다. 그 후 미국 프린스턴신학교로 돌아가 1953-1955년까지 강사로 재직했다. 이 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암 투병 중에 소천했다. 1955년 한국 전쟁이 끝나자 한국으로 돌아와 선교사로 섬겼다. 1956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아일린 플라워(Eileen Flower)와 서울에서 재혼하였다. 그리고 1981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수와 대학원장을 지냈다. 1981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설립하는데 기여하고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1977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학교를 빛낸 동문상을, 1981년 한국정부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1981-86년까지는 미국의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헨리 윈터스 루스 에큐메니칼 선교학 교수로 재직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9일 98세로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자택에서 소천하였다.⁴⁷⁾

Today,”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2019년 2월 28일에 확인.

46) 손영규, “‘마펏’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그의 아내인 아일린 플라워는 마삼락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 어릴 때 남편은 한국인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남편의 심장은 한국인이다. 평양에서 성장하면서 남편의 마음에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 한국 분들을 존경하고 진실로 사랑했다. 한국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에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통한 한국인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그를 슬프게 했다.”⁴⁸⁾

프린스턴신학교 웨인 버그 부총장은 ‘그리스도의 사신(고린도후서 5:16-21)’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를 추모하였다.

“사무엘 H. 마펏 박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면서 그 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한국과 한국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의 한국 교회와 한국인들을 위한 헌신과 복음사역은 감히 세상의 잣대로 그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다. 지난 60년 긴 시간 동안 부부가 보여준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는 많은 신앙의 열매와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귀한 분이다.”⁴⁹⁾

(2) 마삼락과 WCC

마삼락(S. H. Moffett)은 마포삼열(S. A. Moffett) 목사의 아들로 WCC에 대하여 적극적

47) 손영규, “‘마펏’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48) 손영규, “‘마펏’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49) 손영규, “‘마펏’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으로 지지를 하였다. 당시 1949년 암스텔담에서 열린 WCC 총회에 한국교회는 옵저버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1954년에 일로이주 에반스톤에서 열린 2차 WCC 총회에 우리 총회는 김현정과 명신홍 2인을 파송하여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김현정 목사는 긍정적으로, 명신홍 목사는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다. 특히 선교부에서도 4개 장로교 선교회 중 남장로교 선교회를 제외하고 캐나다연합선교회, 북장로교 선교회, 호주 선교회 모두 WCC를 지지하고 있었다.⁵⁰⁾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인 마삼락 역시 WCC를 지지했다.

1956년 9월 41차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연구위원이 구성된 이후 같은해 12월 13일 기독교서회 사무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지자인 한경직 목사의 사회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강의를 2일 동안 실시했다. 연구위원회를 상대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의도였지만 경의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쪽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⁵¹⁾

이날 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들인 마삼락 선교사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강의하였는데 1910년 조직된 세계선교협의회에 뿌리를 둔 WCC가 교회의 연합운동이지 한 교회를 세우려는 세계교회 단일화 운동은 아니라는 사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사실, WCC는 특별한 교리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는 교파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신앙연합운동이라고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 당연히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였다.⁵²⁾ 마삼락 선교사는 WCC가 제네바에 설립한 에큐메니칼 연구원을 수료한 지도자로 그 운동의 정당성을 한국장로교회의 지도자들과 총회에 알리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⁵³⁾

다음은 42회 총회(1957년)에 보고한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2회 총회, 회의록, 65-66: 에큐메니칼 연구 위원장 한경직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보고서〉 1957년 9월 23일.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경직

총회장 귀하.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조직- 위원장: 한경직 서기: 정규오. 위원: 전필순 유호준 황은근 박형룡 박병훈 안광국

2. 총회와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관계

1) 1948(9)년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W.C.C. 대회에 김관식 목사가 참석하였다가 귀국하여 보고함으로써 정식 가입하게 되었음.

2)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모인 W.C.C. 대회에 본 총회에서는 김현정 명신홍 목사를 대표로 파송하였음.

3)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헬라어 오이쿠메네(ὀικουμένη)에서 나온 말로서 우주 혹은 한 집이란 뜻이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 중에는 두 가지의 사상적 조류가 있는데

(1) 전교파를 합동하여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는 이와

52) 소재열, “분열의 원인 WCC문제, 역사적 전개과정,” 리폼드뉴스, 2010.1.22.

53)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교회사」, 129.

50) 박용규, 「한국기독교교회사 II」, 971.

51) 소재열, “분열의 원인 WCC문제, 역사적 전개과정,” 리폼드뉴스, 2010.1.22.

(2) 교회간의 친선과 사업적인 병합을 목표로 하는 이가 있다.

4. 본 위원회의 태도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참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기로 하며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에 대하여는 반대하기로 태도를 결정하였사오며

5. 청원 - 1) 관하 각 교회에 본 운동에 대한 사실을 주지케 하기 위하여 팸플릿을 출판코자 하오니 출판비로 금 30만원을 허락하여 주실 일이며, 2) 본 위원회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위원으로 인톤, 마삼락, 명신흥, 김형모 4씨를 보강하여 주실 일이다.⁵⁴⁾

이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이 운동을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사이의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그리고 추가 임명을 요청한 4인 중에 명신흥, 인돈 선교사는 반대하고, 마삼락, 김형모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이었다. 다음해인 1958년 제43회 총회에서는 아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없었다.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연구위원들이 보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찬반논란이 심각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에큐메니칼 연구 위원장 한경직씨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조직

위원장: 한경직 서기: 정규오

위원: 전필순, 황은균, 유호준, 정규오, 한경직, 박형룡, 박병훈, 인톤, 마삼락, 명신흥, 김형모

2. 보고

작년 총회에서 본 위원에게 위임한 에큐메니칼 운

동에 관한 연구와 책자 발행에 관하여는 형편상 실행치 못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⁵⁵⁾

1958년에 들어와 총회 안에서 WCC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 WCC를 찬성하는 이들은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서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한경직, 전필순, 유호준 김형모, 계일승, 안광국 등 좀 더 개방적이거나 온건한 이들이었고, 반대하는 이들은 이대영, 박형룡, 명신흥, 이정노, 권영호, 이환수, 김윤찬, 황은균, 박찬목, 조동진(이상 서울), 양화석, 고성모, 정순모, 박종삼, 문재구, 정규오(이상 호남), 박병훈, 노진현(이상 영남) 등 교계 중진들이었다. W.C.C.의 반대 운동의 실질적인 주역은 박찬목이었다.⁵⁶⁾

3) 마포화열(Howard F. Moffett) 선교사

마포화열 박사(Dr. Howard F. Moffett)는 마포삼열 목사의 넷째 아들로 1917년 8월 16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중고 등교육 과정을 마친 후 1939년 미국 휘튼대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에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⁵⁷⁾

1948년 4월에 마포화열 박사는 31세의 나이에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한국이 일본 압제에서 해방이 되자,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아버지 마포삼열 목사가 그토록 다시 오고자 했던 한국으로 의료선교사가 되어

54) 소재열, “분열의 원인 WCC문제, 역사적 전개과정,” 리포드뉴스, 2010.1.22.

55) 소재열, “분열의 원인 WCC문제, 역사적 전개과정,” 리포드뉴스, 2010.1.22.

56) 소재열, “분열의 원인 WCC문제, 역사적 전개과정,” 리포드뉴스, 2010.1.22.

57) “마포화열,” 계명대신문, 2017.6.7.

돌아왔다.⁵⁸⁾

같은 해 6월 그는 대구 동산기독병원의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은퇴하여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45년 동안 대구 동산기독병원장, 대구 애락보건병원장,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이사장,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협동의료원장등을 역임하면서 불과 60병상이던 동산기독병원을 1천여 병상의 대형 의료원으로 발전시켰다.⁵⁹⁾

1953년 10월 동산기독병원 내에 아동병원을 준공하여 6·25 전쟁 고아 아이들을 비롯해 집 잃은 난민, 전쟁 미망인들에게까지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1948년부터 1976년까지는 대구 애락보건병원장을 맡아 수많은 나병환자들을 돌보기도 했다. 특히 전국 농어촌에 12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전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⁶⁰⁾

2013년 6월 2일 향년 97세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 소천한 마포화열 박사는 평소 유언에 따라 아내 마가렛 마펫(Margaret Mackenzie Moffett) 여사와 함께 그 해 9월 25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은혜정원 묘원에 안장되었다.⁶¹⁾

3. 결론

마포삼열 선교사의 가계도

마포삼열(Samuel A. Moffett)-엘리스 피쉬(첫째 부인, 이질로 사망)

*첫째 아들, 제임스 M. 마펫(James Mckee Moffett), 목사

*둘째 아들, 찰스 H. 마펫(Charles Hull Moffett), 목사

마포삼열(Samuel A. Moffett)-루시아 피쉬(둘째 부인, 엘리스의 사촌 동생)

*셋째 아들, 사무엘 H. 마펫(Samuel Hugh Moffett), 한국이름 마삼락 목사로 WCC 지지

*넷째 아들, 하워드 F. 마펫(Howard Fergus Moffett), 한국이름 마포화열 의사, 대구동산의료원

*다섯째 아들, 토마스 F. 마펫(Thomas Fish Moffet)

마포삼열은 미국 매키믹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공부하고 조선에 들어와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사무엘 휴 마펫(마삼락)은 아버지와는 다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 그것은 WCC를 지지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집단 혹은 가족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며,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58) 손영규, “마펫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59) 손영규, “마펫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60) 손영규, “마펫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61) 손영규, “마펫 선교사 가문,” 한국누가회선교부, 2019.5.24.



대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계승 고찰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은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충신대학교를 설립했다. 충신대학교 전신인 평양장로회신학교는 1901년에 평양선교부 마포삼열 자택에서 시작되었다. 그 신학교가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선교부는 이에 반발하여 신학교를 폐쇄했다. 선교사들은 평양신학교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제29회 총회(1939년)는 “신학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로 본 총회와 선교회와 협동 경영하여오든바 선교회가 만 1개년이나 자의로 개교치 아니하고 또 연기이오니 본 총회가 직영을 금추에는 당연히 개교 하실 일 이오며(경영하기로 가결).”라고 결의했다. 평양신학교를 개교하여 총회가 직접 경영하기로 결의했으며, 고장에는 채필근 목사로 했다.

일제는 미국을 상대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전시 체제에서 ‘종교단체법’에 따라 일본 내 종교단체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고, 1941년 일본 내 모든 기독교 교파를 <일본기독교단>이라는 단일 교단으로 통합하여 전시 체제에 활용하였다. 모든 선교사는 강제 출국을 시켰다. 강제적으로 모든 선교사를 추방할 때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재 조선 선교회 법인 명의 재산, 신학교 유지재단의 재산은 일제에 의해 적산처리되었다. 1941년 12월 22일 적산관리법을 조선

등(臺灣·樺太)에 시행하는 건(칙령 제1178호)과 적산관리법시행령(칙령 제1179호)이 일본의 적산 관리법 제정에 맞추어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이어 1941년 12월 29일 적산관리법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343호)이 제정되면서 미국과 영국이 적산관리법과 적산관리법시행령 상의 적국(敵國)으로 고시(告示) 되었다(조선총독부고시 제2086호, 1941.12.29.).

평양장로회신학교의 유지재단 재간은 적산으로 남아갔으며, 1942년 제31회 총회에서 후 평양신학교(교장 채필근)는 이러한 평양신학교의 적산 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후 평양신학교와 1940년에 설립하여 개교한 조선신학교 역시 교역자 양성 학교로 허락받고 1946년 남부총회에서는 직영신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남산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면서 이 학교 역시 총회 직영신학교가 되었으며, 대구에서 개교한 총회신학교로 이어졌다.

이러한 직영신학교뿐만 아니라 총회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총회야간신학교로 출발한 각 지역의 인준신학교가 설립되었다. 현재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칼빈신학교, 서울신학교, 대전신학교, 인천신학교, 부산신학교 등이 총회 인준 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대신대학교는 어떠한 설립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특히 대신학교의 전신인 대구장로회신학교로 출발한 이 신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선교 분할정책에 따른 대구 경북지역의 선교

한국의 초기 선교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 부로부터 파송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초기 선교가 이루어졌다. 1884년 9월 20일에 입국한 알렌 선교사,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 등으로 한국선교가 시작되었다. 1885년 6월에는 의사 해론이 내한하였고,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그 후 1890년에 마포삼열(Rev. S. A. Moffett), 1891년 배위량(Rev. W. M. Baird), 마포삼열 선교사가 입국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1901년에는 평양장로회신학교를, 배위량 선교사는 부산초량교회 송실학교(송실대 전신)를 설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베어드 선교사(배위량)는 부산 경남지역을 거쳐 대구 경북지역 선교의 기틀을 놓았다.

백낙준 박사는 대구선교지부 개설에 대해 “대구의 선교지부는 아담스와 존슨에 의해서 1897년에 개설되었다”고 했다.⁶²⁾ 또한 클라크(AllenClark, 郭安連) 선교사는 “스테이션 자리 : 대구, 조직한 연수 : 1897년, 조직자 씨명 : 안의와 내외, 장의사 내외”라고 기록하고 있다.⁶³⁾ 언더우드는 “비록 베어드가 대구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아담스가 1897년에 대구로 이사를 하고, 그해 겨울에 존슨(Woodbridge Johnson, 張仁車) 부부가 합류했었지만 선교지부로서는 1899

년에 개설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로우즈(H. A. Rhodes)는 “대구는 공식적으로(officially) 1899년 5월 1일에 선교지부가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⁴⁾ 대구선교지부 개설일이 1897년과 1899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현재 대신대학교(합동)와 영남신학대학교(통합)은 그 설립이 동일한 학교이며, 1959년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면서 각각 분열된 신학교로 계승되었다. 문제는 영남신학대학교의 출발을 1913년 3월 1일 미국 선교사인 안의와(아담스) 선교사에 의해 보통성경학교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연혁을 정리하면서 이로부터 영남신학대학교의 전신으로 삼고 있다. 이 연혁에 의하면 1937년 12월 1일 이 보통성경학교를 고등성경학교로 개편하였다고 했다.

아담스(J. E. Adams, 안의와)는 미국 맥코믹신학교 출신이다. 1894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한국 부산 선교지부의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그의 매형인 베어드 선교사가 부산에서 이미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담스 가족은 1895년 5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대구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베어드가 1896년 11월에 서울로 이동함에 따라 후임자로 자신의 처남인 아담스가 대구 선교 책임자가 되었다.

과연 아담스(안의와) 선교사가 운영한 보통성경학교가 영남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될 수 없다. 영남신학대학교는 대구신학교를 전신으로 출발한 신학교이다.

2. 대구신학교 설립(1954년) 전 설립 이야기

62)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298.

63) 광안런 편, 『長老教會史典彙集』 (경성: 조선예수교서회, 1918), 177.

64) Rhodes, 177., 박창식 논문 41에서 재인용.

대신대학교 연혁에 의하면 “설립일을 1953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3회(1953. 12. 17) 경북노회는 대구지역의 보수주의적 신학자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신학교 설립위원으로 박병훈, 정일영, 김광수, 명신흥, 김삼대, 차태화, 김상백 등을 선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1954년 1월에”초대 이사장으로 명신흥 목사가 취임하다.“라고 기록한다. 그해 4월에 “경북노회 주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야간신학교'를 개교한다. 당시 교사는 대구 중앙교회당에서 개교하였으며 초대 교장은 김광수 목사이다. 학생 수는 1학년 42명, 2학년 42명, 3학년 35명으로 총 119명이다.”라고 한다. 이어서 9월에는 “제55회 경북노회에서 교명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야간신학교 대구분교'로 개칭하였다”라고 연혁을 기록한다.

경북노회 제53회(1953. 12. 17) 때 대구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구에 신학교 설립키 위하여 연구위원 7명을 신학부에 맡겨 18일 오전 계속회에 선정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경북노회 상비부인 신학부는 12월 18일에 다음과 같은 결의 내용을 보고한다.

“신학부에 맡긴 대한신학교 대구분교 유치위원 7명은 박병훈, 정일영, 김광수, 명신흥, 김삼대, 차태화, 김상백 씨를 선정함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위 기록에 의하면 제53회 경북노회에서 대구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연구위원을 신학부에 위임했는데 신학부가 7인을 임명하여 연구하여 본회에 보고한 내용은 “대한신학교 대구분교 유치위원 7명”이었다. 이 위원은 대신대학교 1953년 연혁에 기록된 7인(박병훈, 정일영, 김광수, 명신흥, 김삼대, 차태화, 김상백)과 동일하다. 1959년 합동과 통합측이 분열된 후인 통합측에 속했던 대구장로회신학교 <장로회신학>(창간호, 1960)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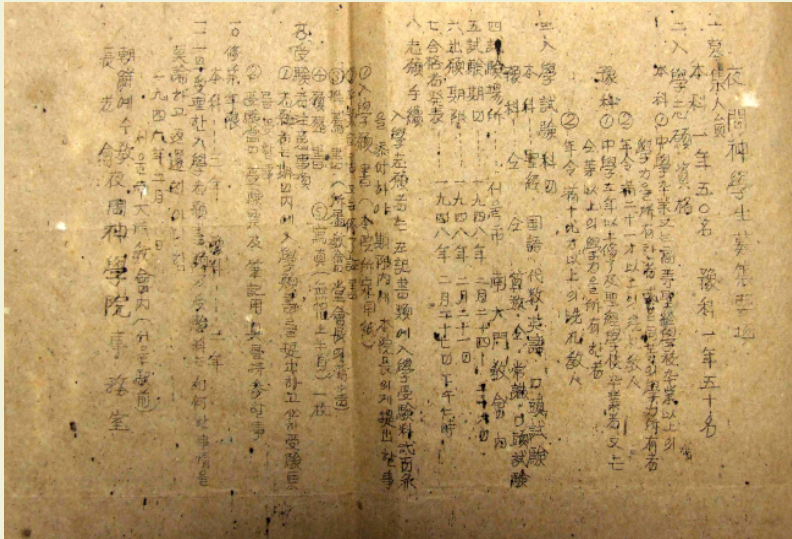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경북



神學校期成會發起趣旨書(신학교기성회발기취지서)(1948년 2월)

노회 제53회 회의록이다. 신학부가 본회에 보고한 “대한신학교 대구분교 유치위원 7명”이 결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야간신학교”로 개교하였다. 여기서 “대한신학교 대구분교 유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야간신학교”와의 연계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신학교 전신은 대한예수교장로회야간신학교였다(神學校期成會發起趣旨書(위 사진)는 1948년 2월에 발표되었으며, 동시에 학생을 모집공고를 했으며, 합격은 1948년 2월 28일 하오 2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야간신학교 모집요강(1948. 2.) 남대문교회내; 합격자 발표는 1948년 2월 27일 하오 2시로 발표한다고 공고했다.

남대문교회 장로들은 김치선 박사에게 신학교를 총회에 넘기도록 했다. 그러나 김치선 박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결국 교사를 남대문교회에서 서소문 적산가옥으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중앙일보와 호남아트홀 자리이다.⁶⁵⁾ 남대문에서 서소문으로 옮기면서 1950년 5월 24일에 대한신학교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1개월 전이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김치선

표현한다고 공고했다(위 공고문 참조). 개교는 1948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2년 후에는 대한신학교로 개명했다. 월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에는 일하며, 밤에 수업을 하는 야간신학교로 출발했다. 김치선 박사 주축으로 설립한 대한예수교장로회야간신학교(대한신학교)설립된 것이다.

神學校期成會發起趣旨書에 의하면 참여한 노회는 강신명을 비롯한 경기노회 5명, 경남노회는 김만일 목사를 비롯한 9명, 경안노회3명, 경동노회 3명, 경북노회는 명신흥 목사와 박병훈 목사, 김광수 목사, 정일영 목사 등을 비롯한 14명이었다. 기성회발발기취지서에 이름을 올린 4명은 1953년 경북노회 제53회 정기회에서 대한신학교 대구분교 유치위원이 되었다.

월남한 김병형 목사도 그 당시 남대문교회에 다녔으며, 대한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주로 북에서 공산당에게 가족을 잃은 이들이었다. 김치선 목사는 남대문교회에 부임할 때에 50여명이었지만 교회는 무려 4,500명으로 부흥하였다.

목사는 부산으로 피난갔으며, 일본인 교회인 부산중앙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노진현 목사를 만나 그곳 광복동중앙교회에서 신학교를 개교했다. 노진현 목사와 김치선 목사는 일본 고베중앙신학교 동기생이었다. 대한신학교는 부산에서 교장 윤필성 목사, 제주도 분교 교장에 이환수 목사가 재직했다. 휴전 후 서울로 올라와 이 두 분교는 합병했다. 종전 후 1953년 10월 19일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신학교 부산분교”로 정하고 중앙교회, 복성교회, 광복교회를 임시교사로 정하고 교수를 시작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에 이순경 목사가 그리고 초대 교장에는 노진현 목사가 취임했다. 이 신학교가 부산장신대학교이다.⁶⁶⁾

남대문에서 개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야간신학교의 발기인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구에 대한신학교 대구분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학교 이름을 대한신학교 대구분교로 시작했다. 경북노회 제54

65) 『총회 50년사』(대신) (2012), 143.

66) 부산장신대학교 연혁 참조.

本校沿革

設立의 動機와 目的

祖國의 光復과 아울러 異色의 神學校의 亂立은 實로 極甚했다. 經濟的 事情과 地理的 條件으로 敎界의 進出을 꿈꾸는 뜻 있는 青年들은 爲先 서울 보담 隣近의 神學校에 入學하기 일수 였고 故로 因한 現象은 思想의 混亂 敎勢의 萎縮 等에 一대 危機를 招來시킬 憂慮가 없지 않았다. 就中 急變되어 가는 社會 趨勢에 眞理 宣布를 爲한 神學徒 輩出이 時急함을 目擊한 大韓 예수敎長老會 慶北老會는 此에 神學校 設立의 必要性을 切實히 느꼈다.

그레서 “大韓 예수敎 長老會 慶北老會 指導 下에 純 聖經의인 思想에 立脚하고 長老會 信條와 憲法에 基準하여 敎會 男女 敎役者를 養成함”을 目的으로 하였다.

設立準備委發足

慶北老會는 1953年 12月 18日에 本校 設立 準備委員會를 選定하여 一任시켰는데, 그 名單은 朴炳勳, 鄭一永, 金光洙, 明信弘, 金三大, 車泰化, 金相珀 以上 七人.

1954年 1月 18日 大邱市 內唐洞 朴炳勳 牧師 宅에 本校 設立 準備委員會가 會集. 初代 委員長(理事長) 明信弘 牧師 司會 下에 눈물겨운 祈禱를 올린 後 本校 初代 校長을 選定하니 金光洙 牧師가 被選. 그에게 開校 準備 一切를 一任시켰다.

開校

1954年 4月 12日 正午 7時 30分 大邱 中央敎會 下層을 本校 臨時 敎舍로 하여 開校. 學生이 本別科合해서 1年 42名 2年 41名, 3年 36名. 都合 119名.

理事陣의 變動

1956年 3月 7日 過去의 理事陣은 全部 解體하고 新 理事陣을 組織. 俞正淳 李相根 梁瓊彦 崔載華 金容圭 朱德根 申泰植 鄭奎萬 宋元在 以上 九人.

1956年 9月 4日 上記 理事陣은 財團 關係上 自動的으로 解體되고 新 理事陣이 組織. 金周夏 金世民 徐희順 金泰益 朴春福 崔載華 林采允 朱德根 朴炳勳 鄭一永 洪大衛 等 11人.

歴代의 理事長

- ① 1954年 1月 18日 부터 同年 7月 18日 까지 明信弘 牧師.
- ② 1954年 7月 18日 부터 1955年 11月 8日 까지 鄭一永 牧師.
- ③ 1955年 11月 8日 부터 1956年 3月 7日 까지 金相珀 牧師.
- ④ 1956年 3月 7日 부터 同年 3年 19日 까지 李相根 牧師.
- ⑤ 1956年 3月 19日 부터 同年 6月 20日 까지 崔載華 牧師.
- ⑥ 1956年 6月 30日 부터 1958年 10月 日 까지 金周夏 長老.
- ⑦ 1958年 10月 日 부터 現在까지 申厚植 牧師.

認可問題

1956年 6月 30日 字로 金周夏氏의 林野 94町 4反 5畝, 李相洪氏의 企業體及 林福秀 氏의 林野 2千坪 等 時價 一億 五千四百萬五千七百圓 該當의 財團으로 文高 第1, 741號의 財團 認可를 文敎部 長官으로 부터 받았다.

1957年 3月 21日 字로 250 坪에 該當한 建物を 買受하여 文高 第 526 號의 設立 認可를 文敎部長官으로 부터 受하였다.

1959년 분열된 통합측 대구장로회신학교 창간호 <장로회신학> 창간호(1960.9.20.)

회 경북노회 정기회(1954년 3월 16일)에 제출된 신학교 준비위원회는 1948년 2월에 남대문교회

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야간신학교 기성회발기인 에 참여했던 명신흥 목사를 위원장으로, 김광수

목사를 교장으로 하여 4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 개교하게 된다. 이렇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야간신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했다.

경북노회 제55회 정기회(1954년 9월 16) 회의록에 의하면 학교명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야간신학교 대구분교'라고 보고를 했다. 이 보고 내용은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1954년 4월 23일 경북 안동중앙교회에서 소집된 제39회 총회에 총회신학교 박형룡 박사가 신학교 상황보고를 했다.

6. 1951년 9월 18일부터 대구시 임시로 개교한 본교는 1953년 10월 21일에 본과가 서울 남산공원 박물관으로 이전하였고 예과는 1954년 4월 7일에 완전히 이전하였습니다.

10. 본교에 야간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⁶⁷⁾

신임교장 박형룡 박사의 교장취임식과 김치선, 게일승 박사 양 교수의 취임식은 1953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구 서문교회장에서 가행하였습니다.⁶⁸⁾

총회신학교는 대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에 정착하면 신학교를 운영하였다. 한국장로회 총회는 1951년에 고신측 교단과 분열되었고, 1953년에는 기장측 교단과 분열되었다. 이런 분열의 와중에서 총회가 직영하는 총회신학교로서는 도저히 교회가 요구하는 사역자들을 다 배출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1954. 4. 23)는 숨어 있는 인재에 대한 발굴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

회 총회야간신학교를 설립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설립위원으로 김윤찬, 이환수, 박찬목, 안광국, 김규당 목사를 선정하였으며, 총회야간신학교가 1954년 7월 28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동성교회에서 개교하여 설립됐다. 초대교장으로 김규장 목사가 취임했다.

대구에는 1954년 10월 19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야간신학교 대구분교가 설립되었다. 총회 대전야간신학교는 1954년 8월 25일, 광주야간신학교는 1954년 10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장로회신학교 이사장 안두화 씨가 제55회 총회(1955. 4. 22)에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신학교와 총회야간신학교와 다음 조항과 같이 합동하여 총회직영 야간신학교로 하기로 가결하다.

각서

1955년 3월 10일 귀 이사회 대표 안두화 박사 노진현 권연호 두 분 목사와 본교 대표 김치선 박사와 합석 협의한 결과 여좌히 합의되었사옵기에 자아 각서를 제출하나이다.

1. 교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신학교』라 칭함.
2. 교장 : 김치선 박사를 추대함.
3. 운영이사는 쌍방 동수로 한다.
단 귀측 이사에는 남, 북 장로교 선교회에서 각 1인씩 포함하고 현 대한신학교장은 동수 외 별도로 참가함.
4. 대한신학교 졸업생은(전 졸업생 포함) 총회신학교 졸업학년에 무조건 편입함을 재확인함을 요망함.

단, 대한신학교 졸업생 입대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주심을 요망함.

6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 회의록』, (1954), 영인본 회의록, 286.

6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 회의록』, 285.

1955년 4월 20일

대한신학교 설립대표 김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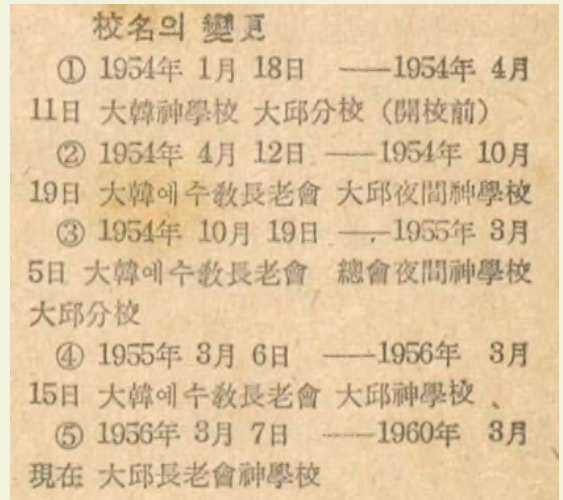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이사장 귀하⁶⁹⁾

이러한 두 신학교 합동은 총회야간신학교 대구 분교를 졸업하면 역시 총회신학교 졸업학년에 편입하도록 되는 길이 열렸다. 1955년 4월 제40회 총회에서 총회야간신학교는 대한신학교와 합병하여 대한신학교로 함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야간신학교 대구분교는 1955년 3월 6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신학교로 사용하는 주에 55년 4월 22일 대한신학교로 합병한 후 대한신학교로 변경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신학교로 계속 교명을 사용하였다. 이 명칭은 ‘대구장로회신학교’로 인가를 받기 이전인 1956년 3월 15일까지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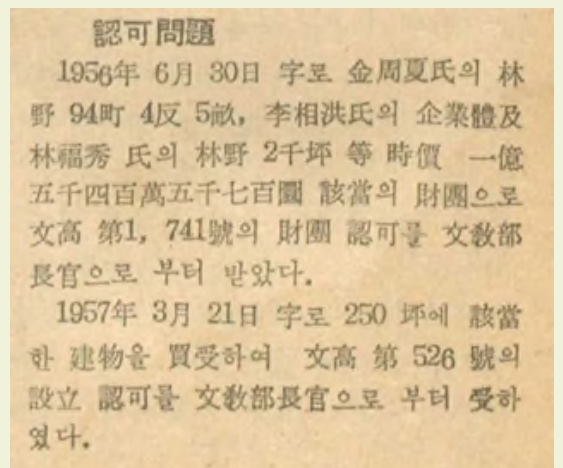
대구신학교는 ‘재단법인 대구장로회신학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1956년 5월 31일자로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30일에 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았다.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구장로회신학교’ 설립을 신청한 결과 1957년 3월 11일에 인가가 나왔다. ‘고등학교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이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를 입학 대상으로 4년 수업연한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때 ‘대구장로회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미 1956년 3월 신학기부터 사용하였다.

주무관청인 문교부로부터 신학교를 인가 받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금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6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0회 총회 회의록』 (1955. 4. 22), 360.



1959년 분열된 통합측 대구장로회신학교 창간호 <장로회신학> 창간호(1960.9.20.), 74.



1959년 분열된 통합측 대구장로회신학교 창간호 <장로회신학> 창간호(1960.9.20.), 73.

하지만, 당시에는 ‘재단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했다. ‘재단법인 대구장로회 신학교 유지재단’이라 하는 이름으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을 위해 김주하 씨의 임야 94정 4반 5무, 이상홍 씨의 기업체와 임복수 씨의 임야 2천 평 등 시가 1억 5천 4백만 5천 7백원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인가를 받았으

며, 그 법인이 신학교 설립인가는 250평의 건물
을 매수하여 주부관청인 문교부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대구장로회신학교 분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1959. 9. 24)
는 연동 측과 승동 측으로 분열되었다. 양 측으
로 분열의 원인은 WCC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였
다. 겉으로는 박형룡 박사의 3천만 환 사건인 것
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
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측이 분열해 나가기 한 해 전인 1958년, 미
국장로교회의 제 170회 총회는 북미연합장로교
회(UPCNUS)와 통합하여 미국연합장로교회
(UPCUSA)가 된다. 이 총회는 UPCUSA로 변하
는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대신할 새로
운 신앙고백의 제정을 결의한다.

1958년부터 유진 블레이크가 주도한 이러한
미국장로교회의 에큐메니칼 혁명은 곧 그의 지휘
를 받는 미국연합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
장로교회를 뒤흔들게 된다. 연합장로교회의 선교
본부가 있는 뉴욕 사무실은 그 이름이 <에큐메니
칼 사업부: Ecumenical Ministries>로 바꾸고
한국 주재 연합장로교회 선교사 마포삼락
(Samuel Maffett, Jr.)으로 하여금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한국
NCC를 통하여 출판케 하였다. 이것이 1958년
12월 12일의 일이다.⁷⁰⁾

70)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
국기독교연합회, 1958).

1959년 9월 24일 제44회 총회는 직전 회장이
노진현 목사에 의해서 개최되었지만,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총회장은 허
락을 받아 증경총회장 연석회를 통하여 자문을
받아 “11월 24일까지 정회한 후 서울 새문안교
회에서 속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에큐메
니칼 측은 이에 불복하고 다음 날인 29일 오전
10시 서울연동교회에 회집하여 총회를 속개함으
로 50년 전통의 한국장로교회 총회를 분열시켰
다.⁷¹⁾

이러한 분열은 미국연합장로교회 본부와 그들
의 한국선교부의 주도면밀한 배후 조종으로 이루어
진 것이었다. 그 증거가 표면으로 나타나 증명
된 것은 미국연합장로교회 에큐메니칼 선교부 한
국선교부 대표 안두화(Adams)를 필두로 선교사
전원 명의로 11월 24일까지 정회하기로 한 총회
의 결의가 불법이라고 한 성명서였다.⁷²⁾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 계속회(통합)가
1959년 9월 29일 오전 10시에 연동교회에서 소
집될 당시 경북노회 소속으로 참여한 선교사는
안두화와 구이령이었다. 그리고 목사총대는 차태
화, 신후식, 남상호, 유정순, 김삼도, 강인구, 우
익현 등이었다.⁷³⁾ 분열당시 신학교의 재단법인
이사장 신후식을 비롯하여 핵심 인사들과 선교사

71) 성명서, (미국연합장로회 구역 협동사업부 회
장 안두화 외 부원 일동; 1959년 10월 7일)을 참조할
것.

72) 한국기독교시보, (1960년 5월 5일: 제 239호)
참조.: “성명서는 9월 29일 연동교회에서 속개한 총회
가 ‘합법적 제 44회 총회’라고 주장하고 “이후 11월
24일 모이려는 회의를 합법적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회의 속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미 선교사
들이 제44회 총회를 주도하였을 보여준다.

7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 계속회 회의
록, 1959, 33.

안두화를 비롯하여 모두 친 WCC 측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나 잔류 측(승동 측)은 '대한장로회 신학교'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신학교가 오늘 의 대신대학교로 계승되었으며, 역사적인 설립의 초석을 1948년에 설립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야간신학교'와 경북노회 결의로 설립한 1954년의 개교를 신학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측은 대구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한 안의와 (아담스) 선교사가 1913년 3월 1일에 시작한 보통성경학교를 그 뿌리로 두려는 연혁은 결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는 사실⁷⁴⁾을 부각시키는 제스처에 불과하지만, 그들 역시 설립을 1954년으로 하여 개교 60주년 기념을 2015년에 기념하였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초대 교장 마포삼열(馬佈三悅: Samuel Maffett)로부터 시작하여 라부열(羅富悅: Stacy L. Robert)이 1927년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1939년 마지막 졸업식을 거행 한 후 얼마 안 되어 폐교되기까지 모든 교수진과 강사진은 확고한 성경관과 개혁주의정통신학을 고수하였다.⁷⁵⁾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포삼열 선교사 아들인 마삼락은 철저히 미국의 WCC화된 미국연합장로교회 본부에 주도하여 한국장로교 총회 안에서 이를 실현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하여 제44회 총회 분열과 더불어 대구장로회신학교와 재단이 통합 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 경북노회와 대구장로회신학교 잔류 측은 신학교 재단법인과 인가받은 신학교가 없어져 버렸다. 이제 제44회

총회 이후부터 무인가 신학교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직영 신학교인 총회신학교와 너무나 흡사했다.

현재 대신대학교는 제44회 총회 분열 이후 일명 승동 측 계열에서 총신대학교와 함께 역사적인 개혁신학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사실이다.⁷⁶⁾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내 영남의 정체성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 지방을 포함한 일명 '영남' 지역의 신학적 정체성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함께 하였다. 제44회 총회 모든 재단과 단체가 선교사들과 함께 연동 측(통합)에 귀속되어 버렸다.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승동 측인 영남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지키며, 역사적인 신학적 정체성을 보수하고 계승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1979년 정규오 목사 중심의 비주류가 총신의 좌경화를 주장하며 새로운 총신 복구를 주장하며 분열해 나갈 때에도 영남인들은 총회와 총신, 그리고 대구에 정통보수신학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1979년 정규오 목사 중심의 비류 측이 분열해 나간 이후 첫 총회가 부산에서 제65회 총회개 개최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1980년 9월 25일에 부전교회에서 소집되어 제65회 총회장으로 이영수 목사를 선출했다. 정규오 목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51인 신

74) 영남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연혁 참조.

75)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 S. A. June 30-July 3", (1934), p. 40.

7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신대학교사:1954-2012』, 186페이지 이후를 참고하라.



양동지회 회원인 호남의 최성원 목사는 정규오 목사를 지지하지 않고 교단총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으며, 제65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이 되어 영호남이 총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총신의 좌경화를 주장하며 총회를 떠났던 비주류는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영입(합병)하여 1979년 제64회 총회에서 떠났던 개혁 측과 하나 되었다. 2005년 다시 돌아온 개혁 측에 소속된 호남인으로서 소강석 목사는 영남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영남지역에 각종 행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면서 집회 강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된 영남인들의 저력은 지난 제107회 총회에서 호남(구 개혁) 인사를 제치고 영남인을 당선시켰다. 이는 지역 감정 조장이 아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구 개혁인 인사로 제105회 총회장이 된 소강석 목사는 총회장 재임 중에 이러한 역사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박형룡 박사와 함께한 정규오 목사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역사 다큐 제작이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지키는 그룹은 호남이 아닌 영남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보인다. 이제 영남인의 영남신학을 보여주어야 한다. 총회

내 영남인의 깨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호남 등과 함께 총회와 지역 신학대학교를 활성화시켜 이러한 보수적인 신학을 계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결론

필자의 이번 논고는 대신대학교에서 발행한 『대신대학교사:1954-2012』의 역사 서술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정말로 신학적 정통성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지역 신학교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성했다. 일련의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은 어쩌면 호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호남의 광신대학교는 정규오 목사와 연계하여 신학교 정통성을 정리한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영남의 대신대학교는 특정 개인과 연계된 신학적 정통성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학적 정통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⁷⁷⁾

이제 총회 내 영남지역의 정치적 리더십이 신학과 신앙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

77) 『대신대학교사:1954-2012』, 190.; “그동안 대구에서 든든히 지켜오던 대구장로회신학교는 교회가 분열되는 와중에 정식인가가 통합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인가와 무관하게 보수주의 신학을 파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우선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인가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측으로 기울어진 대구장로회신학교에 가담하지 않고 그대로 잔류하였다. 이들은 비록 학교가 무인가 신학교가 되었지만, 보수신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버티었다.”

지교회 대표자 지위에 대한 정관의 법적 효력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교회는 종교상의 교리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지만, 민법의 단체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다.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과 대표자이다. 개별 지교회 담임목사인 대표자는 첫째,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 둘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 셋째, 대표자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한다.⁷⁸⁾ 그러나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그 특별한 경우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이다. 담임목사인 대표자는 지교회 교인들의 교인총회를 통해 청빙과 소속 노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원칙과 예외 사항이 있다.

첫째,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단 헌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은 지교회의 대표자는 지교회의

78)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운영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교단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⁷⁹⁾

둘째, 지교회의 청빙을 교단이 거절할 경우이다. 지교회가 교단 헌법의 절차에 따라 담임인 대표자 승인을 요청에 이를 거절할 경우가 있다. 이때 대표자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답변과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교회 교인들이 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속 교단(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노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교회에서 선임한 대표자의 법률효력에 관해서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전체 뜻대로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삼자와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⁸⁰⁾

실무적으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사사건인 경찰에서 이러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대표자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셋째, 교회 정관으로 이를 정확히 명시하였을 경우가 있다. 교단 헌법에 따라 지교회 대표자를

79) 대법원 75. 12. 9. 73다1944 판결 ;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지교회로서 설사 2개의 파로 분파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위 경북노회나 원고 교회의 운영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중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

80)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선임할 때 소속 교단(노회)의 승인이 없으면,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면, 반대로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표자에 징계권으로 대표권을 박탈하고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임시 대표자)을 파송하였을 때⁸¹⁾ 지교회는 자신들의 대표권을 제3자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다.

이에 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대표자가 교단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교회 정관으로 이를 달리 규정하면 된다. 교회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본다.⁸²⁾ 그러나 지교회와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관계로 보며, 특정 교단에 가입은 쌍방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⁸³⁾

지교회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면서 소속 교단 헌법을 지교회 자치 규범에 따라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자치 규범으로 교회 정관을 제정할 경우, **그 정관은 “지교회 종교의 자유 본질과 독립성”에 의해 교단 헌법이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법리는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 지교회 정관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⁴⁾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특별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 지교회는 교단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는다.⁸⁵⁾ 따라서 지교회 정관에 반드시 예상된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결국 지교회 대표자를 노회(교단)가 지교회 담임목사의 대표권 직권 박탈, 면직 등의 결정이 있을 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교회 대표권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면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하여 지교회 교인들의 의지에 반할 수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소속 교단(노회)이 본 교회 담임목사를 시벌하여 대표권을 박탈할 경우,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대표권 지위가 유지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아니면 **“소속 교단(노회)이 본 교회 담임목사를 시벌하여 대표권을 박탈할 경우, 본 교회 교인 3분의 1 이상의 서면 날인으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 안전과 임시 대표자로 추대를 받은 자가 임시 공동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여 관련 안전을 처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의 정관은 “지교회 종교의 자유 본질과 독립성”에 해당하여 교단(노회)이 이를 무효할 수 없다. 이는 특정 권력 집단에 대항하는 방법일 수 있다.*⁸⁶⁾

8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 소속 전체 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 없이도 위 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8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판결참조.

8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 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사찰의 중단소속 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정 중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사찰과 특정 중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8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8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